

# 장흥군, 봄 양상추 25톤 대만 수출 물꼬

### 따뜻한 기후 관산읍 노지 양상추 재배환경 좋고 품질 우수해 벼농사 대비 3~4배 고소득...농가소득 효자종목으로 떠올라

장흥군 관산읍에서 재배된 봄 양상추가 대만 수출의 첫 물꼬를 텄다.

장흥군은 지난 23일 관산읍 오형주(58세, 남) 농가에서 생산한 봄 양상추 25톤이 대만 수출길에 올랐다고 밝혔다.

남쪽 바다를 끼고 있는 장흥군 관산읍은 따뜻한 기후의 영향으로 노지에서 양상추를 재배하기 좋고, 품질 또한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관산읍에서 시범적으로 3.5ha로 시작한 양상추 재배는 올봄 규모가 배로 불었다.

현재 5개 농가에서 7ha 규모의 양상추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



는 가을에는 재배면적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처럼 양상추 재배가 각광을 받게 된 데에는 논농사 대비 3~4배 높은 수익과 짧은 재배기간에 이유가 있다.

도매가로 10kg 1박스에 4,500원에 출하되는 양상추는 단위면적 3.3㎡ 당 6,000~7,000원의 고수익을 가져다준다.

벼농사가 3.3㎡ 당 2,000원 이하의 수익률을 보이는 것에 비해, 단위면적 당 소득이 매우 높다.

재배기간이 50일 이하로 짧아 소득 회전율이 매우 빠른 것도 큰 장점이다.

실제로 양상추 재배는 봄과 가을 두 차례 재배하며, 그 중간인 여름철에는 사료작물을 심어 추가 소득을 거둘 수 있다.

이날 출하를 마친 오형주 씨는 "오랜 시간 동안 농민운동에도 참여하며 우리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도전해 왔다"며, "양상추가 장흥을 대표하는 고소득 작물로 자리 잡아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승필 기자

## 여수시, 귀농·귀촌 팸투어 참가자 모집

여수시가 귀농·귀촌 팸투어 '배우GO, 느끼GO' 참가자를 모집한다.

귀농·귀촌 팸투어 '배우GO, 느끼GO'는 여수지역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농업현황과 정착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팸투어는 7월 6일부터 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여수시의 농업현황, 귀농·귀촌 정책 등을 안내받고 선도농장 견학도 하게 된다.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여수에 먼저 정착한 귀농인들과 교류하

귀농·귀촌 희망자 20명 6월 8일까지 신청  
7월 6일부터 이틀간 일정...선도농장 견학 등

있다.

이번 팸투어의 모집인원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20명이며 가족단위 신청도 가능하다.

참가 희망자는 다음달 8일까지 시 농촌진흥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고 팩스(061-659-5844) 제출도 가능하다.

고 농촌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시 관계자는 "농촌에서 행복한 삶을 꿈꾸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꼭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팸투어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한 해 여수시에 정착한 귀농·귀촌인은 169세대, 36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여수=송기홍 기자



## 장흥바이오식품산단에 대형 도축시설 오는 29일 '첫 삽'

2020년까지 1천억 원 들여 도축, 햄·소시지 가공 시설 등 설립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에 투자 규모 1천억 원 상당의 대형 축산물 가공시설이 들어선다.

장흥군은 오는 29일 장흥바이오식품산단에서 빛그린식품(주) 축산물 도축 및 가공·판매 시설 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가공식에는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김성 장흥군수, 남명호 빛그린식품(주) 대표이사 등 관계자 1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총 66,000㎡의 부지에 들어서는 축산물 가공시설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총 3단계의 추진과정을 거쳐 설립된다.

사업 1단계는 도축 및 경매, 육가공 시설, 2단계는 햄, 소시지 등 식

육가공 시설을 갖춘 계획이다.

도축 및 가공 시설이 완공되면 축산물 관련 가공업체를 추가로 유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축산물 가공시설이 정상가동 되면 고용인원은 380명, 연매출은 1,48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빛그린식품은 내다보고 있다.

이번 축산물 가공시설이 들어서기까지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지난해 5월 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축산물 가공시설 유치를 확정짓자 인근 마을 주민들이 악취와 소음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한 것 수개월 간 이어진 마찰은 기업과 마을주민들이 한 발짝 양보하며 해법을 찾게 됐다.

장흥=김승필 기자

## "무안군 장난감도서관서 영유아 장난감 빌려가세요"

내달 7일부터 이틀간 하반기 회원 선착순 모집



무안군 장난감도서관은 오는 6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영유아와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장난감도서관 하반기 회원 1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남악복합주민센터 1층에 문을 연 무안군 장난감도서관은 현재 622종 1230여 점의 다양한 장난감을 구비하여, 비싼 장난감 구매에 대한 부모의 부담도 덜어주고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 문화 및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

이번 모집 회원들은 회비 1만원을 납부하고 올해 말까지 별도의 장난감 대여비 없이 장난감도서관

을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맞벌이 가정을 위해 매주 화요일은 저녁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회원신청은 무안군에 주소를 둔 영유아 가정이라면 누구나 무안군 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www.muantoy.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회원모집 등 자세한 문의 사항은 무안군 장난감도서관(☎061-450-4170)으로 연락하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무안군 영유아와 부모들이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으며 회원신청을 원하는 문의가 많은 실정이다"며 "앞으로 장난감 보유 및 운영 상황을 검토하여 회원을 확대 모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 완도군 사이버교육센터 신규 강좌 개설

엑셀2010·한글2010·다문화 과정 3개 개설

완도군은 주민 정보화 교육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교육센터의 신규 강좌를 개설하고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완도군 사이버교육센터는 시간이 나 경제적으로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교육을 위하여 컴퓨터, 어학, 교육문화, 자격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집에서 쉽게 학습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컴퓨터 7개 분야 35개 강좌, 어학 영어회화 초급 외 6종, 문화·교양 4개 분야 22강좌, 자격증 한자능력검정과정 6강좌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신규 추가된 강좌로는 엑셀 2010, 한글2010 등 신규 버전에 따른 업데이트 강좌가 있으며, 교양·문화 부문 다문화 과정 3개 강좌를 신규로 개설했다.

특히, 다문화 과정 강의에서는 변호사가 알려주는 건강한 다문화 가정을 준비하는 방법 등 현재 지역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정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전문가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

완도군 사이버교육센터(http://edu.wando.go.kr)는 완도군민이면 누구나 회원가입 후 강의 수강 가능하다.

또한, 현장 무료 정보화 교육은 각 읍면 지정장소에서 이뤄지며 7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활용 방법 및 스마트기기 이해, SNS 활용 등의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